

2026. 1. 24.(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1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정원도시국 조경과

조경과장	온수진	02-2133-2101
정원조성팀장	김승렬	02-2133-2107
관련 누리집 (메뉴)	- https://parks.seoul.go.kr/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3쪽

서울시 GS건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 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라운지형 휴식정원 조성
- ESG 기반으로 도심 녹색공간 확산 협력,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조성 협력
- 시, “기업의 참여로 휴식과 경관, 이용 편의까지 두루 갖춘 공간”

-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되며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정원을 선보인다. 최장기간 선보이는 서울의 정원축제를 통해 기업은 ESG 기반으로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철학을 담아 휴식과 경관, 이용 편의까지 두루 갖춘 특별한 정원 조성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층 풍성해질 것”이라며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이 계절마다 정원의 변화를 즐기고,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정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협약식 사진 (1.23일 11시 제공 예정)



'26. 1. 23.(금) 협약식
(왼쪽부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Q1|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기업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 ◆ 2015년부터 개최해오던 박람회를 국제적인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정원 조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정원조성 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하였으며 세부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Q2| 기업동행정원 조성 추진 방법은?

- ◆ 서울시와 기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규정된 상호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합니다.
 - (서울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홍보 지원, 장소제공, 인수 후 유지관리 등
 - (기업) 정원의 설계 및 시공, 홍보, 재정지원 등

|Q3| 향후 유지관리는?

- ◆ 서울시와 기업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며,
- ◆ 이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합니다.